

# 전남 김 생산액 1조 눈앞...농수산물식품 수출 1번지 건인

올 생산액 77% 늘어난 8천억 달러...수산물 단일 품목 최초 달성  
수출 시너지 효과 전남 농수산물식품 2억3천만달러 기록 효자 종목  
글로벌 수요 급증...축구장 2300개 규모 양식장 새로 조성키로

전남 김이 국내 농·수산물식품 수출 1번지를 건인 하는 전남지역 대표 수산물로 우뚝 섰다. 전 세계 122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전남 김 생산액은 1조를 눈앞에 돌 정도로 급증했고, 생산량도 국내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또 해외 시장에서의 김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수출량 증가에 대비해 13년 만에 신규 김 양식장 조성에 나서는 한편, 해남·신안·장흥·진도로 김 산업 진흥구역을 확대해 김 생산·가공·수출 역량을 육성·지원하는 등 김 세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생산액 1조 눈 앞...단일 수산물로는 처음=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물김 생산을 마무리한 결과, 생산량이 전년도에 견줘 1만 7000t이 늘어난 40만 8000t에 달했고, 생산액도 3500억원 증가한 8000억원을 달성했다.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 생산액이 8000억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사·군별로는 진도(2284억원), 고흥(2162억원), 완도(1320억원) 순이었다.

전남 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50만 9000t)의 80%,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9742억원)의 82%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생산액 증가에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122개국으로 김 수출이 확대된 게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량이 늘고 재고율이 줄어든데다, 일본의 작황 부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남 김 등 수출 효자 품목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 상승 등으로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도 올해 4월 현재까지 2억 3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성장했다.

◇김 수요 폭증...축구장 2300개 규모 양식장 새로 조성키로=전남도는 세계적 김 수요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남 바다에 축구장 2300개 규모(1658ha)의 신규 김 양식장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양식장 재배치로 인한 김 양식 면허 승인을 제외하면 전남지역에 신규 김 양식장이 조성되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새로 생기는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2700ha(1ha는 1만㎡) 규모로 전남(1658ha), 충남(470ha)·전북(470ha), 부산(52ha), 경기(51ha) 등의 순이다.

세부 양식장 허가 조건 등을 고려한 최종 면적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대로라면 전남 바다에 새롭게 조성되는 양식장 면적만 축구장 2335개 규모에 이르게 된다. 내년부터 물김 1만 240t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 기반이 마련되고, 양식 소득도 연간 약 240억원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는 지난해 여수 바다 800ha에 걸쳐 신규 김 양식을 하겠다는 여수시 요청을 불허하는 등 그동안 신규 김 양식장 면허를 제한해왔다. 이때문에 면허도 없이 김 양식에 뛰어들어 어민들이 생겨나 어민들 간 갈등도 불거졌고, 최동익(민주·비례) 전남



장흥군 어민들이 김 양식장에서 친환경으로 기른 무산 김을 수확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 380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해외 시장에서의 김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수출량 증가, 일본의 김 홍작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물김·마른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김 양식장 개발에 나섰다.

신규 양식장의 경우 사·군 별 어장이용개발계획, 양식장 여건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신안·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가 해수부 허가 규모를 반영, 사·군별로 수립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사·군은 다음

달 중순 신규 양식장에 대한 어민들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전남지역 김 양식 허가 면적은 6만 2140ha로 진도(1만 5698ha)가 26.3로 가장 많고 완도(1만 1643ha·19.5%), 고흥(1만 358ha·17.4%), 신안(9977ha·16.7%), 해남(5487ha·9.2%), 장흥(3598ha·6.0%) 등의 순이다.

◇김 세계화 및 경쟁력 확보 총력=전남도는 신규 양식장 허가뿐 아니라 해남·신안에 이어 장흥·진도까지 김 산업 진흥구역을 확대해 김 생산·가공·수출 역량을 육성, 지원하는 등 김 세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안정적 김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육상재배 및 냉동망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 김 할당처리제 및 부가장치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고효율 김 할당처리물질 신규 개발에 나서 무기산 사용 근절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안정적 양식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농·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맞춤형 제품 개발, 현지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수출단체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 김 양식장을 추가로 조성, 김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품질도 높여 K-푸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순천시 이번엔 연구용역 내용 문제 삼아 전남도 공모 불참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 공모 거부  
독자적 의대 신설 신청 입장 고수  
전남도 23일 입찰 공고 설명회

순천시와 순천대가 3년 전 용역 설계를 문제 삼아 전남도 공모에 불참하고 독자적으로 정부에 의대 신설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참여 첫째 조건으로 2021년 연구 용역 공개를 요구하고, 전남도가 이를 전격 공개하자 이번에는 용역 일부 내용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며 공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소지역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 용역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활용할 수 없는 자료로, 이를

일부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와 순천대를 설득하면서도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순천대가 불참할 경우 공모의 정당성이 일부 상실되면서 그 결과를 정부가 인정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 명확한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가칭) 입찰 공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목표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의대 유치 의향서 등 서류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해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의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기까지 1~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순천대와 순천시를 설득해 공모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도의 ‘2021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22일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불신을 드러내면서 전남도에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공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동부권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별도 여론조사를 통해 ‘독자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전체적인 틀을 보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거 용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유현성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의사·간호사 신규인력 충원 배치

전남대병원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전공의 공백 사태에 대비, 의사와 간호사 등 신규 인력을 충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전남대병원은 21일 열린 진료과장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대병원은 곧바로 6월 안에 임상교수 채용 및 전임의사 추가채용을 실시하고 동시에 진료전담 의사직을 신설해 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임의사는 지난 3·4월에 채용한

31명에 더해 51명을 추가 채용해 부족한 의료진을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진료전담의사는 환자가 물리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선발·배치해 병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한 현재 128명에 달하는 PA간호사 외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부서에 PA간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유민 기자 lyb54@

##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북, 우상화 박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

석했다며 다수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만 별도로 포착된 적은 많았지만, 김일성·김정은 초상화와 같은 배열로 내걸린 게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사 주식회사 제이원솔라 2024년 5월 14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주식회사 제이원솔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로 21, 3층 304호 (금호동)  
대표이사 김해나

### 자본감소(임의의상 소각)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유한회사 에스제이텍(이하 "당사")은 2024년 05월 20일 개최된 임시사원총회에서 당사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 174,000,000원으로 감소시키고(감소되는 자본금의 액: 금 26,000,000원) 출자 1회당 금 10,000원의 출자본 2,600회에 대하여 희망하는 사원으로부터 1회당 금 367,616원에 유상 양도받아 이를 소각하는 방식(임의의상)으로 출자권을 20,000좌에서 17,400좌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본 공고게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유한회사 에스제이텍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당동서로 329(오식도동)  
대표이사 전재범  
대표이사 이종성

### 분할합병공고

2024년 5월 22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베스테크(이하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부일전력(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와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갑" 주식회사 베스테크  
전라남도 순천시 산당2길 82(용당동)  
사내이사 손성수  
"을" 주식회사 부일전력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전두1길 9-56  
대표이사 이희진

###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합69 준강간미수
- 피고인 : 정현서  
위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죄로 기소되었으나 준강간미수의 범죄의 증명에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지혜

###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비박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 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